

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

- 2018.5.15~16일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개최되어 한일 양국에서 약 300명의 경제인들이 참가하여 기념비적 회의를 함께 축하함
-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“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협력”이라는 제하의 공동성명 채택과 함께 성공리에 회의를 마무리

□ 개요

- 2018.5.15~16일 (사)한일경제협회 및 (일사)일한경제협회 주최, 산업통상자원부 및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협력으로 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일본 도쿄 오후라호텔에서 개최되었음
- 이번 회의에서는 ‘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를 다 함께 축하하고, 경제·인재·문화교류를 통해 다음 50년을 창조해 가자!’라는 주제로, 향후 50년의 한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
- 50회 회의를 기념해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전달됐으며 일본에서는 다카마도노미야 비(妃)*,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이 개회식에 참석해 기념 축하를 했음
 - * 다카마도노미야 비는 일본 왕족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하는 등 한일 간 친선을 위해 노력한 고(故) 다카마도노미야 친왕(아키히토 일왕의 사촌)의 부인
-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1회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걸쳐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왔음
- 2018.5.15일은 개회식, 기조연설,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결과보고, 16일은 본회의(세션 1, 2), 공동성명 채택 및 폐회식이 진행되었음



<본회의>



<공동성명 채택>

□ 본회의 제1세션 “한일경제제휴·교류, 미시적·거시적 관점” 발표 내용

[1] 한일기업 투자동향으로 본 동남아시아 거점으로서의 베트남·미얀마 소개

(후쿠다 야스시 스미토모상사(주) 집행임원·물류인프라사업본부장)

1. 한국스미토모상사 소개

- 한국스미토모상사의 역사는 1963년 일본본사로부터 서울 연락원 파견으로 시작되어 현재 본사 파견원 5명, 현지직원 68명으로 구성
- KORES와의 마다가스카르 니켈 프로젝트, 삼성SDS와 사우디 아람코문화센터 전용 IT Package 수준 및 시공, GS건설과 호치민메트로 토목 프로젝트 수주 및 공사 등 다수의 한국기업들과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
- 중국의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한일에서 차이나+1 움직임이 확대, 스미토모상사도 동남아 지역에 공업단지를 개발 및 운영하고 해외 제조업을 지원

2. 베트남 동향

- 한일 양국 기업에서 對베트남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배경에는 ASEAN 3위의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, 값싼 전기요금 등 양호한 조업환경, TPP 참가 등 밝은 미래 성장력과 같은 장점이 있음
- 한국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1995~1997년의 제1차붐(섬유·의류), 2006~2010년의 제2차붐(금속가공),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제3차붐(전기전자)을 이루고 누계 투자액은 592억 달러를 기록
- 일본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1995~1997년의 제1차붐(오토바이), 2001~2008년의 제2차붐(OA기기), 2010~2013년의 제3차붐(핸드폰)을 거쳐 2017년부터는 제4차붐이 시작된 것으로 예측되며 누계 투자액은 511.7억 달러
- 스미토모상사는 베트남에서 탕롱 공업단지, 제2 탕롱 공업단지, 제3 탕롱 공업단지의 3곳을 개발 및 운영
- 향후 베트남 진출에 관하여 한국기업의 동향으로는 삼성/LG로 대표되는 전기전자 기업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며, 백화점 및 한류드라마 등 소프트파워의 영향으로 소비재가 번창할 것으로 예상

- 일본기업의 동향으로는 중소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며 베트남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IT 및 서비스업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3. 미얀마 동향

-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개방된 5000만의 시장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음
 - 2015년의 핸드폰 보급률은 2012년 대비 70% 증가, 외국투자도 계속 확대 중
 - 2017년 일본기업의 對미얀마 투자액은 393.4백만 달러이며 약 50%가 제조업에 대한 투자
 - 한편 한국기업의 對미얀마 투자액은 280.8백만 달러이지만 광업, 운송업, 금융·보험업이 중심으로 제조업의 비율은 약 10%에 불과함
- 스미토모상사는 2014년부터 델라와 공업단지를 운영하면서 미얀마의 과제인 불안한 법제도 및 인프라 부족을 해결, 현재 일본기업 45개사, 한국기업 9개사가 단지 입주를 계약

[2]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 요인을 통해서 바라본 한일경제 협력·교류 확대

(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대표이사회장·(사)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)

1. 도레이그룹 소개

- 도레이는 1926년에 시작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“소재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”는 R&D 철학을 가지고 있음
 - 역대 사장들은 기술자 출신이 많고 세계 1위, 세계 최초, Only One의 기술 및 제품을 다수 배출
- 한국에는 1963년에 한국나일론에 나일론 제조기술을 공여하면서 진출했으며 2018년에 55주년을 맞이했음
 - 1999년에 설립된 도레이첨단소재주식회사는 탄소섬유, IT소재 등 첨단재료에서 한국국내 마켓 세어 1위

2. 한일경제 협력의 장점

- 한일 기업의 강점을 서로 보완하면 경쟁력을 강화한 협업이 가능
 - 한국에는 세계적 대기업이 많으며 이들과 일본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동반 성장이 기대됨

- 또한 한국은 인천공항 및 부산·새만금 등 항만을 활용하면 일본, 중국, 동남아 등으로 사업 전개하는데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고, 세계 GDP 기준 77%의 시장과 체결한 FTA도 일본기업에게 매력적일 것임

3. 한국 도레이그룹의 미래

- 한국 도레이그룹에서는 (1)아시아 신홍국 사업 확대, (2)탄소섬유 사업 확대, (3)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(PPS) 사업 확대, (4)기술개발 강화에 주력
- 아시아 신홍국은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기저귀 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많아 유망 시장임
- 한국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세계 1위 기업인 도레이그룹의 산업용 탄소섬유 아시아 제조 거점을 자부하고 있으며 경북 탄소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
- 도레이그룹이 PPS수지 사업을 한국 도레이첨단소재로 이전 사업화하면서 최초 해외 사업 거점으로 성장, 세계 최초 일관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의 코스트 경쟁력을 보유
- 또한 한국 도레이그룹 통합 R&D센터를 설립하여 핵심 연구역량을 집중시켜 한국 국내 첨단소재 기술 발전에 기여

[3] 한일경제연계에 있어서의 메가뱅크의 역할

(다카하시 가쓰노리 (주)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장)

1. 미쓰이스미토모은행(SMBC) 서울지점의 역사와 비즈니스 모델

- 1982년 스미토모은행과 1985년 미쓰이은행이 각각 서울지점을 설립, 2001년 합병과 동시에 각 지점도 통합
- 2007년에는 국민은행과 업무 제휴 MOU를 체결하고, 2011년에는 한국기업의 제3국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코리아 영업부가 설립되었음
- SMBC서울 지점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됨
- (1)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, (2)한국기업의 제3국 진출 지원, (3)한일 협동 제3국 진출 지원(프로젝트 파이낸스 중심), (4)한국의 對日투자 및 對日협력 지원(①투자안전 소개·파이낸스, ②비즈니스 매칭), (5)세계적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등

2. 각 모델 내용

- 일본기업의 한국 진출 지원의 목적은 진출 초기 단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
 - 2017년에는 바이오플라스틱공장 건설, 리튬이온이차전지용 분리막 증산 등 에너지, 전자, 소재 분야에서의 투자가 많았음
- 한국계 기업이 SMBC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 세계에 진출이 가능
 - 한국의 제3국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헝가리, 뉴칼레도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고 있는데 SMBC는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재정적으로 지원
- 또한 한일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투자 시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식으로 장기적으로 지원
- 최근 한국 기관투자자들의 對日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스 안건 등의 소개, 파이낸스 지원 등을 실시
 -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제휴 및 합병 설립 수요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SMBC는 일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적극적으로 지원
- 또한 최근에는 일본시장 정보 공유 및 일본기업과의 비즈니스뿐만 아닌 제3국의 업계 정보 제공, 일본기업이 아닌 기관과의 비즈니스 매칭도 추진

[4] Toward next 50 years!

(서석승 (사)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·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)

1. Up to the potential

- 한국과 일본은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나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지만 양국이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어려움
 - 한일 간 무역, 투자, 인적교류 등의 현황을 보면 아직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음
 - 한일 간 협력이 쉽지 않는 이유를 일본의 특수성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경제협력은 이익의 최대화 및 리스크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공평하고 차별하게 추진해 나가야 함


2. 현실적인 한일 경제협력

- 산업구조가 유사한 한일은 협력하면 이익은 조금 덜 늘어나지만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음
 - 최근에는 제3국 공동진출이라는 형태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
- 또한 한국에서는 청년 실업, 일본에서는 인력부족이 이슈이며, 한국청년의 일본기업 취업과 같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협력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협력관계이라고 할 수 있음

3. 한일경제협회 및 한일재단의 사명

- 한일경제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
 - 또한 일본 측 카운터 파트너인 일한경제협회와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다음 50년을 향해 한일 관계 강화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임

□ 시사점

- 한일경제인회의는 수백 명의 양국 경제인 대표가 모여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명실 공히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회의
 - 한일 양국간 민간경제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(経団連)의 대표들이 모여 경제현안을 서로 논의하는 한일재계회의가 있었으며, 양국 상공회의소 간 협의회회가 있으나 규모나 역사 측면에서 한일경제인회의에 미치지 못함
 - 더불어 본 회의를 통해 양국간 합의한 공동성명문은 원칙적으로 양국 정상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양국간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
- 다음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는 2019년에 한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. 

<참고자료>

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경제리포트(2017.9.7.) “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본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과 특징”
 한일경제협회(2017.5.15.) “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 자료집”
 한일경제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/>)